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장 애 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Experimental Design Depicted on Hussein Chalayan' Works

Ae-Ran J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2. 5. 20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erimental design by using deconstructive design and mobile design depicted on Hussein Chalayan' works.

Hussein Chalayan, the Turkish-Cypriot who is based in London, says 'Challenging is the best word for me'. And so word, 'radical' that has difficult connotations was chosen for this study. It implies two meanings for the word. The first thing is "extreme" - something that is drastic. And 'Applied to clothes', it can probably mean "experimental". He has iconoclastic ideas and his ramp shows are always high on concept, experimentation of art and utility. His approach to fashion derives from philosophical and intellectual theories of deconstruction and mobility, which he expresses through his designs. Deconstructionism, in fashion, rejects customary rules and breaks all conventions. It questions aesthetic norms about bodily proportions and the criteria of beauty, emphasizes the adding on, or discovery of, an irrational moment, and reveals the processes of tailoring in clothing. The shap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ar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lor. Cuts, tears, asymmetries, matching different materials are among the most evident features of the deconstructive design. And Chalayan performed the mobile design of transforming furniture into clothes. Chair covers became dresses, a coffee table became a skirt which were designed by Chalayan, with geometric and architectural references. Chalayan says he was inspired by the idea of refugees fleeing.

Besides Chalayan uses clothing as an art to reinterpret and reform the human body in a continuous tour de force of body/identity conceptualism and dressmaking. He reflect the body's function in the cultural context of architecture, science, or nature - and then attempt to translate his findings into clothing.

Key words : experimental design(실험적 디자인), deconstructive design(해체적 디자인),
mobile design(이동적 디자인)

I. 서론

현대패션은 다양한 예술 양식이 혼재된 표현이므로 하나의 양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세기말부터 새로움 추구에 가치를 두고 전통과 규범에 의해 제한 받는 것을 거부하며, 이질적인 소재와 형태 그리고 여러 구성 방법이 중첩되어 혁신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21세기패션에도 세기말 현상인 해체적 경향과 더불어 또 다른 새로움 추구를 위한 디자인을 포괄적인 의미로 '실험적인¹⁾ 디자인(experimental design)'이라 정의 내려 볼적이다.

그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먼저 세기말의 두드러진 사회적 현상 및 조형물의 형태가 절충주의적 경향과 함께 전통적 규범에 대한 비판과 해체의 양상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 현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²⁾

두 번째로, 현대패션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은 거대 트렌드의 설정보다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미적 상상력과 삶의 형식에 따라 패션을 표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다원성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파리, 밀라노, 뉴욕은 매 시즌마다 컬렉션을 통하여 동일한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지만, 런던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독자적인 스타일(individuality)의 표현이 두드러져³⁾, 런던패션을 '파괴적인 해체',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미 60년대 하위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의 조화로 패션혁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90년대 이후 Alexander McQueen, John Galiano, Hussein Chalayan과 같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스타일을 발표함으로써 60년대부터 계속된 반항적이고 비주류적인 창의성의 표상이 정착된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런던패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난 40년 동안 독창적인 패션을 이끌어 온 런던패션에는 개인 중심 스타일의 표현을 강조하는 가장 독설적인 표현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과감한 시도들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실험성, 부조화란 용어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패션을 실험적인 의미로 기술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은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다. 디지털의 보급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이미 일을 위한 도구 수준을 넘어 생활필수품이 되어감에 따라,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모빌(Mobile)'환경⁴⁾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디자이너들은 더욱 더 독자적이며 모빌스타일을 활용한 실험적인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빌'이란 '이동할 수 있는', '가동성 있는' 의미로, '단순히 입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복식에 대한 기본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복식을 의미한다. 이동성(mobility)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Hussein Chalayan과 Junya Watanabe가 있으며, 이들은 이동성이란 실험적인 디자인을 입체적인 실루엣과 하이테크 소재들을 주로 사용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후세인 살라얀은 '99-2000 A/W 컬렉션에서 해체적이고, 구조적인 모빌 스타일을 가장 실험적으로 시도한 디자인을 선보인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그는 개념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의복으로 바꾸는 '실험성(experiments)'을 입증하고 있다. 즉 살라얀은 도전적인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고자 급진적인 디자인 발상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므로, 그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실험적 디자인이란 용어 정의가 적합하리라 사려되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후세인 살라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⁵⁾ 살라얀이 의복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것을 해체주의 이론(푸코(M. Foucault)와 라캉(J. Lacan)의 탈구조적 공간분석과 가시성 이론)에 근거하여 의복과 신체의 관계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들을 기호학, 해체주의, 주체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복에서의 공간과 가시성의 관계를 근대사회에서의 주체를 가시화하는 장치로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만을 서술하였고, 살라얀의 작품을 해체주의가 나타나는 터전(site)으로 기술하고자 살라얀의 옷에 나타나고 있는 해체주의적 징후를 살펴본 연구

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극단적인 디자인의 표현방식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립하고자, 연구한 결과로 실험이란 용어를 유추하여, 파생시킨 단어가 실험적 디자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극단적인 디자인을 실험적 표현방식으로 시도한 살라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첫 번째 접근은 해체(deconstruction)에 대한 철학적이고 知的인 이론을 차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건축, 물리에 대한 관심이 이동적 디자인⁶⁾ 작업에 많이 응용되어짐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언어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세기말현상의 하나인 해체주의 이후에 등장한 최근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추구를 위한 극단적인 디자인에 대해 서술할 공식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급진적인 디자인의 대표 디자이너인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을 통하여 이들을 지칭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실험적 디자인'이란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21세기의 패션흐름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적합한 또 다른 새로운 추구를 할 수 있는 표현방식에 의한 실험적인 패션 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도 의의 있을 것이라 사려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의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극단적인 디자인이 실험적으로 시도됨을 '해체적 디자인'⁷⁾과 '이동적 디자인'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2차적으로는 실험적 디자인 용어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인 해체적 디자인과 이동적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양식적 요소인 외적형식과 내적의미로 비교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실험성이 짙은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을 분석·해석한다. 그럼으로써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재규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에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경향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II. 이론적 배경

21세기 패션계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의상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남성상과 여성상을 부정하는 성의 혼돈과 성의 부재가 표현되고, 극단적으로 상이한 요소들로 표현, 전통적인 美의 위계구조를 파괴하여 모든 가치 영역의 탈장르화 현상이 초래된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아방가르드하면서 최근의 실험적인 디자인 개념을 지향하는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Rei Kawakubo와 Martin Margiela,⁸⁾ 가장 최근의 Hussein Chalayan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후세인 살라얀은 1994년부터 급진적인 디자인을 실험을 통해 제작한, 의미가 내포된 입을 수 있는 의상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의미의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위해 우선 극단적인 디자인을 실험성으로 표현한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특성을 배경으로 고찰한다면 실험적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더욱 타당하리라 사려된다.

1.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작품특성

후세인 살라얀⁹⁾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해 '도전적(challenging)'이란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복잡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급진적(혹은 파격한, radical)'이란 단어로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단어에 과감한 그 무엇이라는 "극단적인(extreme)" 의미(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와 극단적인 그 무엇을 '의복에 적용시키는' "실험적(experimental)"이라는 의미(기대했던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사)를 내포시키기로 한다. 그 이유는 후세인 살라얀이 도전적인 정신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표

현을 위한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93년 Central St. Martin 졸업발표에서 옷이 어떻게 부패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재킷에 쇠의 줄밥(iron filings)을 묻힌(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 다음 6주 동안 땅에 묻은 후 도굴하여 발표(기대했던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한 것¹⁰⁾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에 대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도전이었고 나는 그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급진적인 디자인을 위해 도전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2000 S/S 'Before minus now' 컬렉션에서 비행기 날개의 플랩(날개판)이 움직이는 것처럼 플라스틱 폴딩 드레스에 플랩을 달아 리모트 컨트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화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0 A/W 'furniture wear'에서 의자커버를 드레스로, 매끄러운 커피 테이블을 스커트로 변화시킨 디자인은 그의 실험적인 아이디어의 최고 절정이라고 본다.

더욱이 그가 극단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은 건축, 조각에 대한 많은 관심이 그로 하여금 신체에 대한 개념을 활용하여 구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게 한 것이다.

'나는 건축, 과학 혹은 자연과 같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신체의 역할을 고찰하여 이 접근방법을 의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연구결과를 의복으로 바꾸려는 실험¹¹⁾을 한다' '내가 주로 영감을 받는 것은 환상(fantasy)과 현실(reality) 사이에 바로 놓여진 틈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신체와 건축, 조각에 관심이 많은 개념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수 있는 의복에 개념을 붙여넣으므로, 모든 술기, 모든 스티치에 대해 두루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후세인 살라얀의 의복들은 개념화에서부터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길며¹²⁾, 지적이고 우아하며 최소한의 장식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쯤(Zen)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미니멀, 인위적이지 않은 모던에서 유래된 디자인은 지나친 꾸밈은 없지만 독창적이고, 복잡하지만 최소적인, 즉 철학적인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장식은 추상적이고, 무

늑에 대한 아이디어는 비행경로(flight path), 일기 기상도와 같이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등 현대 복식(contemporary dressing)에 생김치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응용하고 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John Galiano와 Alexander McQueen은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후세인 살라얀은 자신의 예술품을 그런 화려하고 소란스러움 위에 두기를 원치 않아 주로 정적이고 딱딱하게 표현을 하지만, 컬렉션을 흥미롭고 드라마틱한 이미지로 요약하여 표현하는 재주가 있다. 예를 들면 긴 차도르를 벗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걷는 매우 마른 모델들의 행렬은 '98년 S/S시즌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의 하나이다. 그리고 라이브 음악(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함)과 함께 설치된 무대에서 3명의 모델들이 작은 망치로 3명의 모델들이 입고 있는 유리섬유로 만든 드레스를 깨뜨리는 극단적인 순간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가 두 개의 문화를 공유하였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출생지인 사이프러스의 정치적 혼란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나는 두 문화를 병존할 수 있는 배경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의 드라마틱한 발표의 가장 훌륭한 예는 2001년 봄 컬렉션에서 공상과학소설 영화인 "Blade Runner"와 제임스 본드를 결합시킨 무대설치 및 의상에서도 볼 수 있다.

위의 기술된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급진적인 디자인을 실험적으로 표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별로 개최된 컬렉션을 중심으로 그의 도전적인 작품들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작품 분석

년도	시즌	개최지	컬렉션 테마	스타일 및 표현기법	특징	비고
95-96	A/W	London	Along False Equator	paper fashion (paper coat)	*전광판이 있는 비행경로를 장식용으로 깨매 붙임. *폴밭의 꽃들을 사진같이 프린트	혁신적인 직물로 유명 소재의 일회성을 상징 95년 영국디자이너녀상 수상
97-98	A/W	London	Scent of Tempests	비즈장식이 있는 의례용 베일(작은 물방울을 암시) 꼭 맞는 케이프(폭풍으로부터 보호를 암시)	일기 기상도를 패턴으로 이용	날씨를 의식화->상징적 의미 부여 이슬람교를 상기시킴
98	S/S	London	Between	minimalist and stoic cuts, eliminating all frills	-cocoon shaped dress (Yashmack) :인체구속- 간신히 손이 나올 정도의 슬릿이 있는가 하면, 허리 아래선으로 모두 드러날 정도로 암홀이 큰 것(타바드 드레스) -makeup : red, white, blue로 얼굴을 가로질러 입술 위에 페인트 브러쉬 효과 -주색상: black, navy blue red, white	-Zen 영향 -종교와 공간 개념을 인체에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를 연구 -표현제한을 암시
99	summer	London		*Minimalist style -기하학적인 형태 -구성적인 모듈형태 *디자인과 건축에서의 혁신은 신체의 비율을 재디자인	기하학적 라인과 순수한 선과 함께 새로운 기발함을 표현	젠 영향 영국의 디자이너상
		N.Y.		미니멀리즘 (New Romantic detailing에 의해 강화)	-퍼프소매, 작은 루시, 스킵된 헴라인 -blue, wisteria, pink via violet -본질적이고 순수하며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 ☞형태의 본질과 사치성 간의 이상적인 조합 ☞simplicity ☞단순한 형태에 대한 개념적인 정확성을 위해 풍부한 소재를 사용.	TSE를 위한 컬렉션
	S/S	London		*굴지성, 향지성 *일본의 종이접기예술 (오리가미 origami)을 응용	원피스 위에 같은형태의 옷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파격적인 헴라인으로 이루어진 플레어 스커트	중첩

99-2000	A/W	London	*London's forceful avant-garde king	*미니멀 디자인 : 정밀한 테일러링, 조각적이며 해체적인 니트웨어	-미완성적인 이미지 -플라스틱 폴딩 드레스 -backlayerd dress (pillow collar) : 원래 소매나 후드가 있는 위치에 해체적인 오브제가 달린 것.	*Hester Road에 있는 영화촬영소에서 빅쇼를 개최 *모두 흰색으로 하였고, 절묘하게 정밀한 디자인을 선보임.
2000	summer	London		*예술과 로맨틱한 스타일로 새롭게 디자인 결합 *기하학의 아이디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혼합	☞여성스러움(femininity)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고안 ☞로맨티즘에 새로운 이상을 재정립	*탈구축 (deconstruction) *기하학적 구조 (geometric structures)
			Body Talking	cuts, tears, asymmetries 다른 소재의 조화	지팡이를 박아넣은 긴 니트 드레스.	해체주의 패션
	summer	N.Y.	Shadows	*Romanticism *Feminity	☞무채색조와 밝은 색상 조화 ☞약간 플레이된 스커트와 루시가 있는 드레스 (기하학적인 겹치기)	영국의 디자이너상
	S/S	London	Before minus now	*white plastic coated remote control dress *엑시드한 색상의 디컨스트럭티드 코르셋과 플리츠 스커트	☞이륙전의 비행기 날개 처럼 플랩(flap)이 달아 리모트 컨트롤로 작동하여 무대위에서 부풀리게 함	Sadler's Wells Theatre에서 개최(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
00-01	A/W	London	After Word (Furniture Wear)	*의자커버를 꼭 맞는 원피스로 변화시킴 *커피테이블을 스커트 로 변화시킴 기하학적인 형태, futuristic folds, 귀여운 플리츠		건축적인 영감 (mobility)
01	S/S			plissé Intarsia tailoring	옷이란 그 본질이 아니며 일시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과격하게 보여줌.	피날레 :유행의 일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일시성, 덧없음)
02	spring	Paris	Tour de Force	punky, deconstruction	조각조각 찢어지고 일반적으로 파괴되어 마치 폭탄의 폭발 속에서 막 탈출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접을 레이어드한 드레스	미국의 911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 영감

2. 실험적 디자인

현대패션의 극단적인 표현에 대한 최근 움직임과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상황에 대해 서술할 공식적인 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언어로 실험적 디자인이란 용어를 규명하고자 한다. 실험적 디자인은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최근 주로 영국출신의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해체이후의 극단적인 표현과 또 다른 새로움이 추구된 아방가르드한 의미가 내포된 디자인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디자인을 검증할 수 있는 현상인 해체적 디자인과 이동적 디자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해체적 디자인(deconstructive design)

자크 데리다¹³⁾에 의하면, 해체(deconstruction)란 기존의 구조에 대해 다른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즉 허공에 매단 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존 텍스트의 내부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온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해체적 경향(deconstructive trend)이란 내부로부터 진행되는 해체가 어떤 물체의 내부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물이 번식을 하여 결국에는 그 외피가 감추고 있는 왜곡되고 오염된 모습을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본원적인 타락과 오염을 폭로함으로써 기존개념을 뒤집어 복식에 내재하는 본원적 딜레마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란 규범적 관습과 단순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다. 즉 이분법적인 미학적 측면에서의 인체비율과 미의 기준을 무시하고, 작품의 구성과정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의 부조화 및 중첩이 강조된 표현을 말한다.¹⁴⁾ 대표적

인 표현 기법으로는 글자 그대로 의복을 분리시켜 재구성하거나 해체하기, 예를 들어 소재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구김을 넣는 것, 속옷의 겉옷화, 그런지 룩과 헐렁한 형태의 재창조 등 새로운 방식으로 감싸거나 입혀지면서 해체주의가 표현된다.

예를 들면, Jean-Paul Gaultier과 Vivienne Westwood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외형적 표현보다는 이성/감성, 남성/여성, 정신/육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하는 의미적 해석을 위해 파괴적인 디자인을 하였으며, Martin Margiela와 Romeo Gigli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봉제상 부정형화, 안감과 봉제기법의 표면화로 해체패션을 유도하였다.¹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체적 디자인이란 복식에 대한 기존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찢기, 구기기, 자르기, 비대칭구조, 봉제선 없기, 울 풀기 등 평범하지 않은 표현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상이한 요소들로 형태의미의 불확정성, 탈양식, 탈중심, 탈의미적 형태¹⁶⁾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이라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거나 혹은 단편화된 이미지를 조합한 콜라주기법이나 단순한 형태를 변형, 조합, 중첩 등의 패러디 기법으로 표현되고, 전통적인 미의 위계구조가 파괴됨으로써 모든 가치의 영역이 탈장르화 현상이 초래되어 극단적인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실험적 성격이 짙은 디자인이다. 그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통해 불안정과 무질서를 그대로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과정의 역을 취하는 구성방법으로 표현되며, 또한 불연속적 표현을 위해 혼합, 중첩, 왜곡, 삽입, 우연의 구성을 통해 연속성을 해체시키기도 한다.

2) 이동적 디자인(mobile design)

모빌(mobile)이란 자동차 automobile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미술용어로는 조각, 공예품 등에서 기계력 또는 자연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콜더의 모빌은 시간과 더불어 그 실루엣을 변화시켜 하나의 작품 속에 무한한 다양

성을 실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복식에서의 모빌이란 ‘이동할 수 있는’, ‘가동성 있는’ 의미로, ‘단순히 입는다’라는 복식에 대한 기본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기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빌 스타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이동적’이란 용어로 정의하고, 두 가지 의미를 함축시키기로 한다. 첫 번째는 움직임 을 느끼게 하는 표현효과, 즉 운동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디자인 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작의 포즈를 회화나 조각 으로 나타내면 像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보는 사람에게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 즉 슬 로모션 카메라의 한 장면과 같이 형태의 방향이나 겹침·반복·축감(縮減) 등이 방향감을 암시하여 보는 사람에게 움직임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로는 용도가 이동된 표현효과이다. 복식의 기존 개념을 탈피한 탈장르현상으로 초래된 디자인이다. 즉 옷의 기능에서 소품의 기능으로 이동된 것, 그리고 의복이 아닌 다른 용도가 의복으로 이동되는 것을 이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모빌 스타일이 반영된 디자인은 2000 F/W 컬렉션에서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변화나 연출은 없지만, 모빌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요소나 디

자인이 응용된 의상들이 등장하였고, 전체적으로 스포티브한 스타일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주로 입체적인 실루엣과 하이테크 소재들이 사용된다. 특히 Junya Watanabe는 '99-00 F/W 컬렉션에서 모빌성을 가장 잘 응용한 의상을 선보였다. 의상에서 소품으로, 소품에서 의상으로의 변화가 쇼에서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즉 가방에서 재킷으로 변화, 한 조각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숄과 재킷으로 변화된 것 등 이동적 디자인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동적 디자인이란 겹침·반복·축감으로 인해 의복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과 복식의 탈장르화 현상으로 인해, 옷의 기능에서 소품의 기능으로, 의복이 아닌 다른 용도가 의복으로 이동된 것 등 용도의 이동이 강하게 표현된 실험적 디자인이다.

본 연구의 실험적 디자인의 해석을 위해 앞에서 고찰한 정의를 바탕으로 발췌한 분석틀인 해체적 디자인과 이동적 디자인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적 디자인의 양식적 요소

실험적 디자인		외적형식	내적 의미	표현기법
해체적	테리다의 해체 전략	· 균형과 대칭에서 벗어난 비구조적 실루엣과 의복의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 제시	· 인체와 의복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인체 구속, 표현제한)	· 콜라주 : 기존의 형태를 파괴, 단편화하거나 단편들을 조합
	· 형태의미의 불확정성 · 脫장르 · 脫중심 · 脫의미적 형태	· 복식의 외형적 형태가 하나로 통합 · 위치의 전위 · 비대칭 원리 · 형태의 왜곡 및 과장 · 이질적 소재의 부조화	· 특정한 형태 구성방식을 초월 ·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 가능 · 본질로서의 형태 개념 부정 · 다양성(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반패션과 전위적인 패션으로 극히 개인적 표현)	· 패러디 : 단순한 형태를 변형, 조작, 중첩 등으로 시도된 구조적 해체 · cuts, tears, asymmetries · 이질적인 요소들의 단편화, 중첩 · 봉제기법의 표면화
이동적	· 움직임을 표현효과 (이동할 수 있는) · 기능이동의 표현효과 (가동할 수 있는)	· 기존의 의복에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시선유도 · 기하학의 아이디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혼합 · 변화하는 실체로서의 형태	· 자극에 의한 일정한 방향으로 굴곡하는 운동 · 기존개념을 탈피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의복에 의미부여(의복의 소품화, 소품의 의복화, 비의복의 의복화)	· 콜라주 · 중첩, 반복, 조합 · 절충 · 이질적 요소들을 연속된 혼합체내에서 통합

III.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분석

후세인 살라얀의 실험성이 짙은 작품들을 선별하여 해체적 디자인과 이동적 디자인으로 나누어 분석·해석하기로 한다.

1. 해체적 디자인

<그림 1>은 '98 S/S 컬렉션으로, 매우 마른 모델들이 맨 몸에 긴 차도르를 쓰고 행렬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이다. 이는 이슬람교가 의복으로 여성을 구속한다는 개념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종교(Muslim)와 공간 개념을 인체에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의복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림 2>는 패러디 기법으로 소매와 진동을 없앤 변형된 Cocoon 형의 드레스이다. 복식의 외형적 형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여성의 인체를 구속시키는 탈중심적 의미가 두드러지게 표현된 디자인이다. <그림 3>은 타바드 드레스(tabard dress)로, <그림 2>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옆선을 크게 오픈시켜 형태를 극단적으로 과장시킴으로써 형태 의미에 대한 불확정성이 표현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red, white, blue로 얼굴을 가로질러 입술 위에 페인트 브러쉬로 칠하거나 빨간색의 플라스틱 T자(squares)로 봉인하는 등의 메이크업은 표현의 억제(restriction of expression)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그림 4>. <그림 4>는 어깨선과 네크라인 사이에 삼각천을 덧댄 구성과 과장된 소매가 길게 늘어진 것 등에서 단순한 형태를 구조적으로 왜곡, 변형시킨 디자인이다. <그림 5>는 '99 S/S 컬렉션에서 발표된 더블 레이어드 시프트 드레스로, 젠(Zen)의 영향을 받아 표현된 미니멀 스타일이다. 단순한 형태의 두 벌의 드레스를 중첩하여 한 벌은 벗겨진 듯한 모습으로, 본질적 기능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작품이다.



<그림 1> 'Between', S/S '98(London Fashion Book p.113)



<그림 2> Cocoon shaped dress, Gap Press Vol.13, '98 S/S, Gap Press Vol.13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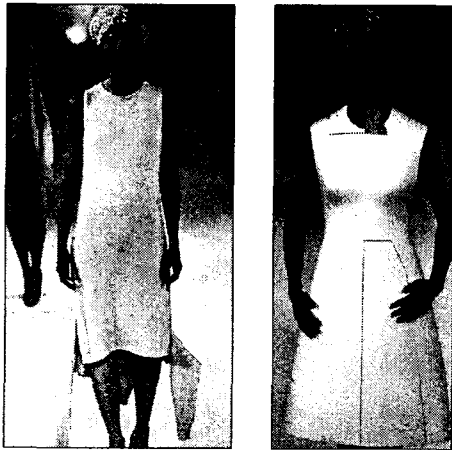
<그림 4> 형태의 왜곡 및 과장된 디자인, '98 S/S, Gap Press Vol. 13

<그림 5> 미니멀 라인, '99 S/S, Collezioni Donna, No.68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99-2000 A/W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본질로서의 복식의 형태개념을 부정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림 6>은 미완성적인 이미지의 실험적 형태를 비대칭구조로 시도해 본 backlayerd dress로, 자동차 좌석의 머리받침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pillow collar가 달린 것이 특이하다. <그림 7>



<그림 6> 비대칭 구조의 Backlayerd Dress, '99-00 A/W, Gap 별권 Vol.2



<그림 7> 위치가 전위된 니트원피스, '99-00 A/W, Fashion News Vol.53(좌)

<그림 8> Motorized Airplane Dress, '99-00 A/W, Fashion News Vol.53(우)

은 기존의 형태구성 방식을 초월한 디자인으로, 니트 원피스에 터틀넥 니트 스웨터가 중첩되어 허리 아래로 거꾸로 덧붙여진 것에서 위치가 전위됨을 알 수 있다.

탈장르를 위한 대표적 소재로써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형태와 색상을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물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영감을 실현해주는 하이테크 소재로 애용되고 있다. <그림 8>은 100% 유리섬유(fiber glass)를 구조적으로 몰딩시켜 만든 'Motorized airplane dress'이다. 그리고 2000 S/S 'before minus now' 테마의 하이라이트인 <그림 9>, <그림 10>, <그림 11>은 <그림 8>을 변형시킨 remote control dress로, 드레스의 형태가 한 남성의 리모트 컨트롤 작동에 의해 변형되는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이는 비행기 이륙시의 날개처럼 옆선에서부터 뒤가 열려져 안에 입은 핑크색의 툴(tulle)이 보이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소재와의 부조화 및 형태의미의 불확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 컬렉션은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쇼(stricking show)로, 그가 상을 받기에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의 skullcaps과 tutus를 입어 마치 로봇같이 보



<그림 9> remote control dress, '00 S/S, Collezioni Donna No.73(좌)

<그림 10> remote control dress, '00 S/S, Collezioni Donna No.73(우)



<그림 11> remote control dress, '00 S/S, Collezioni Donna No.73

이는 모델들은 희게 회칠한 뒤틀린 림을 돌게 하였으며, 몰딩된 드레스는 무대 뒤에서의 리모트 컨트롤의 조정으로 무대 위에서 부풀려지게 한 기발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그림 12>는 기하학적인 아이디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이 조합된 디자인이다. 2000년 여름 컬렉션



<그림 12> Body Talking, '00 Summer, Collezioni Donna No.74(좌)

<그림 13> 단편들이 조합된 불정확 형태의 드레스, '00 Summer, Collezioni Donna No.73(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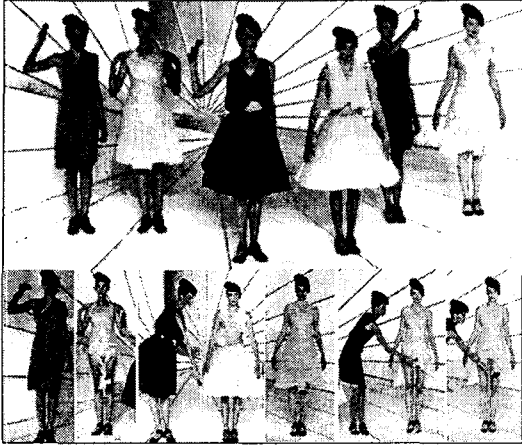
에서 삼각형의 기하학적인 구성선으로 이루어진 흰색 드레스에 이질적인 오브제를 절충하여 해체시킨 디자인이다. <그림 13>은 2000 봄 컬렉션에서 발표된 해체적 디자인이다. 부정확한 형태가 주는 공격적 이미지가 레드로 인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플라스틱의 스컬캡과 기하학적인 커팅 처리로 미래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존의 형태가 파괴된 누벼진 단편들을 조합시켜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표현된 해체적 디자인이다.

<그림 14>는 '95-96 A/W 'Along False Equator' 컬렉션에서 발표한 paper coat이다. 이는 사용 후 버릴 수 있는, 특수접착제로 붙인 종이 옷으로, 하루 밖에 못 가는 일회성의 의미를 소재로 해체시킨 디자인이다. 더불어 <그림 15>도 2001 S/S 컬렉션에서 유행의 일회성을 표현한 해체적 디자인이다. 무대에 6명의 모델들이 등장하는데, 유리섬유로 만든 드레스(지난 시즌 드레스)를 입은 3명의 모델과 옆의 나무 망치를 들고 있는 다른 3명의 모델들이 지난 시즌의 드레스들을 부숴뜨리는 퍼포먼스에서, 옷이란 그 본질이 아니며, 일시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과격하게 보여준 것이다.

후세인 살라얀의 흥미롭고 드라마틱한 이미지 발표의 가장 훌륭한 예는 2001년 London Fashion



<그림 14> Paper Coat, '95-96 A/W, London Fashion Book p.112



<그림 15> 유행의 일시성을 파괴하는 장면, Collezioni Donna No.79

Week의 S/S 컬렉션이다. 그는 히치콕 감독이 촬영장으로 사용했던 오래 된 스튜디오에서 공상과 학소설 영화 "Blade Runner"와 제임스 본드를 결합시킨 점에서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개방된 다차원적인 세계로의 전이가 가능함을 보여준 무대 장치라 사려된다. 모델들은 복제인간처럼 드레스를 입었고, 마치 손 영(Sean Young)이 스테이지(runway)를 걷는 것이라 착각할 정도이다. 무대는

제임스 본드 영화의 장면처럼 흰색 바탕에 깜빡거리는 광학섬유의 별빛으로 밝혔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 사운드 트랙을 연주했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모델들이 등장하는 짧은 영상물이 상영된 후, 진짜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모델들은 재단선이 밖으로 드러난 흰색 슈트 <그림 16>, 소매가 긴 블라우스 위에 박스형의 짧은 재킷과 무릎까지 오는 타이트 스커트, 데님을 짜깁기 한 듯한 옷들 <그림 17>, 다른 색상의 소재를



<그림 16> 재단선이 표면 처리된 슈트, '01 S/S, Collezioni Donna No.79

가로와 세로로 기하학적인 구도로 들어간 원피스 즉 흰색과 빨강이 어지럽게 뒤섞인 폴 드레스 <그림 18> 등을 착용하였다.

<그림 16>은 본질로서의 형태개념을 부정한 작품이다. 재단선이 밖으로 드러난 것과 대조적인 색상으로 스티치를 넣은 것은 기존의 질서를 무시한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스톤 위시로 가공된 데님의 단편들을 콜라주 기법으로 색다른 느낌을 표현한 <그림 17>과 <그림 18>



<그림 17> 인타르시아 기법의 데님, '01 S/S, Collezioni Donna No.79



<그림 18> 인타르시아 기법으로 이루어진 폴드레스, '01 S/S, Collezioni Donna No.79



<그림 19> 여러겹으로 레이어드된 드레스, '02 S/S, <http://www.firstview.com>

은 이질적인 소재의 단편들을 부조화로 중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 디자인이다. 2002년 봄 살라얀의 컬렉션은 미국의 911 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살라얀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컬렉션은 9월 11일 전에 완전히 디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9>와 같이 살라얀의 피날레에서 모델 모두

는 olive khaki색상의 조각조각 찢어지고 일반적으로 파괴되어 아주 슬직히 마치 폭탄의 폭발에서 막 탈출한 것처럼 해체되어 보이는 여러 겹으로 레이어드된 드레스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컬렉션의 전체적인 격변 무드는 메이크업 스타인 Pat McGrath가 얼룩투성이의 소녀에게 한 카무플라주 메이크업<그림 20>과 Musique Nouvelle의 live Ensemble에 의해 더욱 더 공포와 불안정에 관한 표현을 조장한 듯하다. 작품들 자체는 아주



<그림 20> 카무플라주 메이크업, '02 S/S, <http://www.firstview.com>

평키하며(punky reference), 해체(deconstruction) 그리고 태도(attitude) 등이 독창적으로 혼합되었다. 이 컬렉션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쇼의 비전이 무시무시해서 피기한 것이다. 이것은 살라얀만이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하고 절묘한 기술(a tour de force)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이동적 디자인

이동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건축적인 영감을 기본으로, 비대칭 구조를 도입한 디자인과 동적인 것과 정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절히 배합·창출된 입을 수 있는 실용패션으로 이동시킨 실험적인 디자인이다.

살라얀은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대에 등장시키기도 했으며, 의자 커버를 훌륭한 드레스로 둔갑시키기도 등 확실히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와 같은 캣워크를 연출했다. 2000년 A/W 컬렉션에서 스테이지를 굉장히 좁소한 분위기의 거실 같은 공간으로 꾸며, 네 개의 의자, 한 개의 커피테이블, 납작한 스크린TV, 몇 개의 칩과 주전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흰색의 여백이 차지했다. 이 소품들 모두에는 의미가 있다. 살라얀의 모델들은 블랙 코트나 텐(무두질한 소가죽)으로 만든 트렌치 코트, 외관상으로 보기에 심플한 의상들을 입고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코트안의 주머니나 바깥쪽의 주머니에 가정용도구들을 숨기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움 밀레니엄이 초래한 유랑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살라얀은 달아난 도망자(refugees fleeing)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컬렉션에서 피날레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기능이 이동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림 21>은 4명의 모델들이 입을 쉬크한 그레이 시프트 드레스가 의자와 조합된 장면으로, 50년대 식의 의자 커버는 완벽한 쉬프트 드레스로 이동된 것이다. 딱딱해서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은 나무 의자를, 갖고 싶은 여행 가방으로 이동시키는 등 평범한 사물 구조를 재구성하여 패션에 도입하는 기발함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능이 이동하는



<그림 21> 의자커버가 슈프트드레스로 이동, 의자가 여행가방으로 이동, '00 A/W, Collezioni Donna No.76



<그림 22> 커피테이블이 스커트로 이동, '00 A/W, Collezioni Donna No.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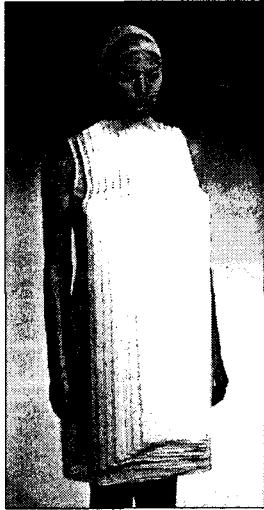
실체로서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모델은 <그림 22>처럼 나무로 만든 커피테이블 한 가운데 서서 그것을 끌어올리자 순식간에

스커트로 이동시킨 장면이다. 끝으로 의자는 슈트 케이스로 집혔고, TV 스크린도 사라져버려 빈 공간이 되면서 컬렉션의 막이 내려졌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건축이나 공학적인 방식, 인체와의 개념을 완벽한 실험을 통하여 시도된 미래적인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개념을 탈피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의복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즉 비의복의 의복화를 통해 다른 용도로 디자인이 이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적인 예이다.

이동적 디자인의 다른 의미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효과를 들 수 있다. 그 예로 <그림 23>은 '99 S/S 컬렉션에서 같은 형태가 한 방향으로

반복적인 겹침으로 인해 움직임의 표현효과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다.



<그림 23> 반복된 형태의 겹침으로 움직임의 표현효과,
'99 S/S, Fashion News
Vol.51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디자인언어를 규명함에 있었다. 그 이유는 세기말현상의 하나인 해체주의 이후에 등장한 최근 극단적인 디자인을 서술할 공식적인 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표현방식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립하고자, 연구한 결과로 실험이란 용어를 유추하여 파생시킨 단어가 실험적 디자인이다. 실험이란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기대했던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21세기가 되면서 젊은 디자이너들은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하고 독자적이고 급진적인 디자인 표현방식으로 실험을 통해 작업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현상을 지칭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용어를 '실험적 디자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21세기의 패션흐름에 적합하고 또 다른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실험적인 패션 디자인을 재해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세인 살라얀이 자신의 디자인은 '도전적(challenging)'이란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기술한 것과 더불어 그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급진적(혹은 과격한, radical)'이란 단어를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단어에 과감한 그 무엇이라는 "극단적인(extreme)" 의미(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와 극단적인 그 무엇을 '의복에 적용시키는' "실험적(experimental)"이라는 의미(기대했던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사)를 함축시켜 연구하였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접근한 실험적 디자인의 두 가지는 해체(deconstruction)에 대한 철학적이고 知的인 이론을 차용한 해체적 디자인과 건축, 물리에 대한 관심이 이동적 디자인 작업에 많이 응용되어짐을 그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세인 살라얀의 실험적 디자인 규명할 분석틀로 발췌된 해체적 디자인과 이동적 디자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해체적 디자인이란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거나 혹은 단편화된 이미지를 조합한 콜라주기법이나 단순한 형태를 변형, 조합, 중첩 등의 패러디 기법(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으로 전통적인 미의식을 거부하고 모든 가치의 영역을 탈장르화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한다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실험적 성격이 짙은 디자인이라 정의하였다.

이동적 디자인이란 겹침·반복·축감으로 인해 의복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하는 표현과 복식의 탈장르화 현상(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으로 인해, 옷의 기능에서 소품의 기능으로, 의복이 아닌 다른 용도가 의복으로 이동된 것 등 용도의 이동(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이 강하게 표현된 실험적 디자인이라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99-2000 A/W 컬렉션에서 해체적이고, 구조적인 모빌 스타일을 가장 실험적으로

시도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 작품들에는 개념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연구한 결과를 의복으로 바꾸는 '실험성(experiments)'을 입증한 실험적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후세인 살라얀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색깔로 영국과 세계 패션의 유행을 창조하고 있으며, 드라마틱한 쇼의 연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닌 의상,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미래 패션계에 가까운 진보적 형태로 인정받는다. 더욱이 50년대 식의 의자커버가 드레스로 이동된 것과 매끄러운 커피 테이블이 스커트로 이동된 것 등의 놀랍고도 혁신적인 디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패션사 영원히 그의 입지를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또한 고정 관념을 파괴, 과감하고 정열적인 디자인, 완벽한 테일러링, 독특한 발상과 새로운 시도는 매우 충격적이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려는 적극성과 도전정신은 늘 패션계에 큰 이슈로 떠오르리라고 본다. 그 외에 21세기의 실험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지속된다면 새로운 미래패션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침이 되리라 사려된다.

참고문헌

- 1) 사전적 의미로, '실험(experiment)'이란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기대했던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 2) 김민수, *모던 디자인 비평, 안 그래픽스*, 1994, pp.122-124
- 3) Amy de la Haya, *The Cutting Edge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N.Y.:The Overlook Press), 1997, p.21
- 4) 이경희 편저, *20세기 모드*, 교학연구사, 2001, p.216
- 5) 김해영, "의복에서의 탈구조적 공간과 가시성에 대한 연구 - 후세인 칼라얀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 *복식* 50권4호, 2000,7
- 6) 이동적 디자인도 엄밀히 말하면 이탈이라는 의미에서 해체적 디자인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기능을 이동시킨다는 의미에서 해체적 디자인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7) 본 연구에서는 해체이후의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디자인을 설명하는데 해체적 디자인을 다룬 것은 21세기가 되었어도 해체적인 경향이 패션계에 아직 남아있고, 또한 후세인 살라얀이 해체이론을 차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실험적 디자인이란 용어정립을 위한 검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 8) 이들은 궁극적으로 해체주의자로 구분되어지기로 한다.
- 9) Huseyin Caglayan(Hussein Chalayan으로 패션 팬에게는 더 많이 알려짐)은 1970년 Turkish-Cypriot Nicosia에서 태어났다. 고국에 있는 Türk Maarif Collage를 졸업한 후, 1989~1993년 런던의 유명한 세인트 마틴(Central S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을 졸업하였다. 살라얀은 철학, 건축 그리고 물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너무 다양하여 실제로 어떤 교수가 그에게 건축으로 전공을 바꿀 것을 권하는 등 전형적인 패션전공 학생 틀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1993년 졸업발표회의 작품은 일류 디자이너 스토어인 브라운(Browns)에 팔았고, 1994년에 자신의 라벨로 런칭하였으며, 같은 해 첫 번째 개인 컬렉션을 개최하였다. 그후 자신의 브랜드와 더불어 뉴욕의 니트웨어 회사 TSE와 영국의 의류 체인 Top Shop을 위해 디자인하였고, 지금은 파산의 어려움으로 구찌사에 소속되어 있다. 살라얀의 경력은 1995년 28세에 Absolut Vodka가 개최한 콘테스트에서 100명의 경쟁자 중에서 일등을 함으로써, London Fashion Week 창작품 개발을 위한 재정상의 발판이 되었다. 1999년, 2000년 올해의 베스트 영국디자이너(British Fashion Designer of the Year)로 선출되는 등 국제적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 Andrew Tucker, *The London Fashion Book*, (London: Thames & Hudson), 1998, p.188
- 10) 살라얀의 작업방법은 원인(cause)에 전념하므로, 그의 졸업쇼를 위해 모델들을 출연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파상풍 방지 주사를 맞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전에 땅에 묻어두었던 재킷은 녹병균(rust particles)으로 뒤덮여있기 때문이다.
- 11) 신체(body)/독자성(identity)에 대한 개념론(conceptualism)이 의상제작(dressmaking)에 반영된 대작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체를 재해석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다.
- 12) 예를 들면, 1993년 졸업작품에서 옷이 부패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 쇠의 출발을 묻힌 재킷을 6주 동안 땅에 묻은 후 도굴하여 발표한 것.
- 13) Jacques Derrida(1930-) : 해체주의 학파를 창설한 프랑스 철학자. 1967년 3권의 책을 출판하여 해체주의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데리다는 이분법적인 것에 저항하여왔으며, 해체전략은 탈중심화, 차연, 산포, 상호텍스트성, 열린사회를 기본개념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언어와 기호의 재현성과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중심주의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한다.

- 14)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1999, p.146
- 15) 김혜정, "현대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Vol.40, 1998, p.142
- 16) 데리다의 해체전략 중에서 실험적 디자인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차용한 것.
- 17) 월간미술 편, *세계 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95, p.133